

이코노 & 비즈 피플

유 동 국 광주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광주미래 10년 대비 경영전략 수립”

광역화, 융·복합, 창조, 일자리 창출이 핵심의제 “성과 안주하지 않고 냉철한 분석으로 미래 설계”

“지역 산업 육성의 컨트론타워로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정책 수립 등 지역산업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1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에 취임한 유동국(48) 박사는 “세계화와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지역전략산업에서 광역선도산업으로 정부정책의 중심축 이동,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 제시 등 최근 테크노파크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세계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과 도시 경쟁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전략 수립,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정책 발굴, 민선 5기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방향 조정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이를 위해 ▲광주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 ▲광주산업의 브랜드 디자이너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기능 강화 ▲

현장 밀착형 비즈니스 기능 강화 ▲연구·기획 기능 전문화 ▲독립성과 최상의 품질이 보장되는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 경영시스템과 자립기반 구축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유 원장은 특히 “광역화와 융·복합, 창조, 일자리 창출을 핵심의제로 10년을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제조업과 문화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특화단지과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제2단지 확보, 재정자립기반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광주대동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매일신문사 사장·회장, 조선대 경상대학 겸임교수,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부대표·광주본부 회장,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 제11대 광주시장 직무인수위 기획총괄팀장, (사)광주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테크노파크=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설립된 산업기술단지(재단법인)다. 1997년부터 광주등 6개 시·군에 18개 테크노파크가 조성돼 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물하세요”

2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이벤트 매장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양한 스타일의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에스윌 ‘화혼반지’ 출시 기념 결혼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

귀금속제품 제조업체 ㈜에스윌(대표 송갑수)은 화혼(花婚)반지 출시를 기념해 중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10주년 기념 수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년 부부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초석인 부부간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하려는 행사로, 이날부터 매드스튜디오 홈페이지(www.maad.co.kr)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100명에게는 부부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도록 백금과 다이아몬드가 세공된 화혼반지 1쌍이 주어진다. 에스윌은 텀스텐 밴드 링에 전통 도자기 제조기법인 상감기법을 응용한 기술을 선보인 업체다. /연합뉴스

올 배추·무·콩 생산량 25% 급감

이상기온·기상악화 영향

이상기온과 태풍 등 기상악화로 올해 배추, 무, 콩, 배 등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5%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김장배추 생산량은 총 118만8000t으로 지난해(158만3000t)보다 25% 줄었고, 김장무 생산량은 47만3000t으로 작년(62만4000t)보다 24.2% 감소했다. 통계청은 “10월 하순 이후의 저온

현상과 배추의 숙이 차고 무의 뿌리가 굵어지는 시기인 10~11월의 가뭄으로 두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김장배추 생산량은 전남이 27만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8만3000t, 경기 15만4000t 순이었으며 세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51%를 차지했다.

김장무는 전북 9만9000t, 제주 9만1000t, 전남 6만9000t 순이었다. 배추와 무뿐 아니라 콩, 사과, 배 등

의 생산량도 줄었다.

올해 콩 생산량은 10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24.3% 감소했고, 배(30만8000t)는 25.4%, 사과(46만t)는 6.9% 줄었다.

콩은 개화기부터 8~9월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 부족, 9월 하순의 저온현상 등으로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25.8% 감소했으며, 배는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와 병충해로 10a당 생산량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민금융119서비스에 관련정보 다 있어요”

서민에 도움되는 10가지 사이트

“서민금융 관련정보를 보려면 서민금융119서비스에 접속하고 금리를 비교하려면 권역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금융지원 및 복지지원 서비스 중 ‘서민이 챙기면 도움되는 10가지 사이트’를 소개했다.

우선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한 군데서 간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를 방문하고, 복지·보건·교육 등 정부지원 관련정보를 통합조회

하고 싶을 때는 정부 종합정보시스템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찾을 것을 권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를 한눈에 보고 상담받으려면 맞춤대출과 환승론을 안내해주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서민의 금융·취업·신용관리 정보를 얻으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웍(http://hopenet.or.kr)를 방문하면 된다.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등 신용회복에 필요한 종합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서민의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휴면예금·보험금

조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 생활자금과 실직자의 창업자금 지원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서 볼 수 있다. 또 예금·대출금리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은행연합회(www.kfb.or.kr),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등 권역별 협회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정보와 각종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연말소득금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편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앞당기는

솔루션파트너 - LG화학

고객의 미래를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고객의 고민을 남보다 '빨리' 해결하며
고객의 필요를 남보다 '지주' 확인합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을 비롯해 정보전자소재, 그린에너지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光銀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전국 12000개 가맹점 이용

광주은행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상품권인 ‘국민관광상품권’을 22일부터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국민관광 상품권’은 5000원권부터 50만원권까지 모두 6가지 종류가 판매되며, 호텔·콘도·백화점·테마파크·스키장·외식업체 등 전국 1만2000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96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리아트래블즈는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연계해 2012년까지 500여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국민관광상품권 판매는 여수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광주은행의 편리한 영업망을 통해 손쉽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 emlee@kwangju.co.kr

대학생 금융이해력 ‘60점’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평균점수가 60.8점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전국 28개 대학의 249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최현자 교수와 함께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 분석 결과 상경계열과 사회계열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5.7점과 64.2점으로 공학(57.4점)이나 예체능(54.5점)계열보다 앞섰다. 또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평균점수는 65.8점으로 전문대학 재학생의 평균점수(49.4점)보다 높았다.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51.7점)은 연체경험이 없는 학생(62.6점)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15.7%에 불과했고, 금리상승시 투자방법에 대한 정답률은 33.8%,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답률은 47.2%였다. /연합뉴스